



# 장애인·농촌총각 짝을 찾아드립니다

### 현대불교-두리결혼, 만남 주선에서 결혼식까지 무료로

열심히 앞만 보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순박한 모습으로 농사일에 전념하던 짝없는 농촌 총각들이 신부감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있다. 또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으로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자란 이름으로 사회로부터 차별과 온갖 부자연스런 육신으로 살아가는 장애자들...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결혼이벤트가 열린다.

<현대불교>와 (주)두리결혼(회장 한유진)이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농촌총각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준다.

결혼을 하고 싶은 장애인과 농촌총각 또는 결혼을 희망하는 이들이 <현대불교>나 두리결혼에 결혼을 신청하면, 몇 차례 1:1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성혼을 약속한 커플에게는 오는 12월경 경원대 음악회 강당과 성남 신라뷔페 예식장에서 경원대 경상대학장 김경수 박사와 두리결혼 한유진 회장의 주례로 무료 결혼식을 거행해준다. 신청자들의 접수비와 혼례식비는 전혀 무료다.

한유진 회장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이치에 따라 누구나 짝을 맺어야 긍정적인 삶, 행복한 생활을 맞출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속에 담고 적극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두리결혼 (031)757-3121 전국 무료전화 1544-4311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현대불교>와 (주)두리결혼은 장애인·농촌총각 등의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결혼을 약속할 경우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준다. 사진제공-(주)두리결혼

##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 선물하고 싶어요”

인터뷰 두리결혼 한유진 회장



“농촌총각들과 장애인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주)두리결혼 한유진(54·사진) 회장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촌총각들과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서 본사 나눔의 손잡기운동에 무료결혼 이벤트를 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동산불교대학교와 능인선원 법사대학원에 재학중인 한 회장은 “회사의 이익금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하게 돼 기쁘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이 밝은 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혼기를 맞이한 사람이나 혼기를 놓친 사람이나 요묘한 인연법에 따라 그 짝을 만나게 돼 있다”는 한은 “역동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은 자신의 짝을 만남으로써 가능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유진 회장은 성남시 도시환경개선 연구소장, 한국 국제결혼 연합회 회장, 경원대 경영정보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사단법인 한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 나눔의 저금통 및 스티커 신청

문수선원  
부산시 북구 구포3동 1240-30  
저금통 - 2개  
스티커 - 10장

### 나눔의 창고

김영란 국유덕 정석현 이아리 등  
319,960원  
총 누적금액 18,085,310원

###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나눔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 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 천태종, 해외입양 딸-아버지 상봉 도와

### 덴마크 신도회 도움으로 가족 확인 김인숙 씨 고국서 즐거운 시간보내

절절한 혈육애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었다.

“네가 정말 막내딸 인숙이냐. 너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7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1975년 딸을 덴마크로 입양시킨 아버지 김종대(66·인천 용현동) 씨는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으로 30년만의 상봉이 이뤄진 순간 사죄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잠시도 딸의 손목을 놓지 않은채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31살의 아이 열매가 돼 덴마크인 남편 닐스 베스터 고우 씨와 고국을 찾은 김인숙(32·덴마크명 피아 헨스) 씨도 “친가족을 만나 너무 행복하다. 한국에 오길 너무 잘한 것 같다”며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오빠와 두 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58년 한국전쟁 때의 불발탄이 터지는 사고로 오른팔과 왼쪽 손가락 두개, 한쪽 눈을 잃은 아버지 김 씨는 41년전 앞을 못 보는 부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김 씨는 벽돌공장과 항만에서 막노동일을 하고 부인은 식당 잡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세 명의 딸과 아들 하나를 얻었지만,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던 김 씨 부부는 막내 딸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인숙이는 식사 때마다 ‘수지 안머(수제비 안머)’ 하면서 토라지기도 하고 뜨거운 국물은 불어달라고 떠들 쓰기도 했어요. 입양이 결정된 뒤에는 좋은 옷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에



1975년 덴마크로 입양된 뒤 30년만에 상봉한 김인숙씨와 가족들. 왼쪽부터 큰언니 영명·둘째언니 인영 씨, 오빠 인숙 씨, 아버지 김종대 씨, 오빠 인석 씨. 사진·박재원 기자

동네 어른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었지요. 어머니는 그렇게도 막내딸을 보고 싶어 했지만, 1990년 먼저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픕니다.”

둘째 언니 인영(37) 씨는 30년전 상황을 떠올리며 또다시 순수건으로 눈물을 뒤어썼다. 하지만 인숙 씨를 입양 보낸 뒤에 김 씨 가족은 어려운 삶을 살았다. 김 씨는 부두 하역일을 하다가 힘이 부치자 고물상을 운영했고, 고생 끝에 10년간 18평 남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 사이 인숙 씨는 덴마크의 양부모 밑에서 우리말은 물론 한국에 대한 기억을 잊은 채 지냈고, 덴마크인 남편을 만나 두 살 된 아들 둘을 둔 어머니가 됐다. 인숙 씨는 “왜 날 입양보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나 가족이 늘었

니 더 많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덴마크 대사관 등을 통해 사연을 전해 온 둘째 언니 인영 씨의 편지를 전해 받은 천태종 사회복지재단과 덴마크신도회 고태정·이미립 부부가 덴마크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이뤄졌다. 천태종에서는 이번 만남을 위해 인숙 씨 부부의 체류비와 여행경비 등을 후원했다.

한편 김인숙 씨 부부는 8월 2일 당양 구인사를 찾아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4일 출국했다. 김인숙 씨는 “조만간 덴마크에 있는 가족들과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박봉영 기자

###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장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장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기우어 주는 정려 불사가 될 것입니다.

-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교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 어떻게 진행되나
  -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 ▷매달 한번씩 동참자명단을 게재합니다.
  -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계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기) 봉사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 자비의 현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야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